

경북, 나노기술 상용화 집중지원

나노기술집적센터 통해 특화기술 개발 ... 5년간 132억원 투입

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5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노기술 상용화와 기업육성에 나서기로 했다.

경상북도는 지식경제부, 포항·구미시와 함께 출자해 설립한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를 통해 앞으로 5년간에 걸쳐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을 추진한다.

나노기술집적센터는 2010년부터 국비 13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억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3사에 지원해 에너지절감형 전력반도체, 나노박막 제조용 증착소스, 나노 임프린트 스탬프 등 3건의 상용화기술 개발에 착수한다.

나노기술센터는 연차적으로 지역의 산업기반인 반도체 소재, 디스플레이 부품·소재, 신소재, 정밀화학 등 특화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산업화까지 포함하는 일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.

또 값비싼 나노개발 전문 첨단장비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24>